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협의체 간담회 개최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5.03.06 17:20 | 10면

김해양산부산지사 미래 농업 핵심 청년농 육성·발전 도모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5일 지사 5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서정훈)는 지난 5일 지사 5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농 5명,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팀장 및 농지은행관리부 직원들이 참석해 2025년도 농지은행사업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농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제도적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년농들은 직접 이용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선임대 후매도, 임대수탁 등)에 대해 긍정적 공감을 표하며 공사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적 개선, 원상회복 관련 규정 완화 등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김대환 농지은행관리부장은 "청년농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농 유입을 증대시키고 농업의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데 농지은행사업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차진형기자



차진형기자